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기독교로 개종한 남성, 아내의 공격으로 중태**



소말리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한 남성이 무슬림 아내에게 쇠몽둥이로 머리 등을 맞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모닝스타뉴스가 전했다. 소말리아 하부 주바 지역에 거주하는 압둘라이 라마단(35.Abdulai Ramadan)은 1월 20일 기독교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다. 이에 격분하던 아내는 남편 라마단을 공격했다.

라마단은 2020년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 조심스럽게 모임에 참석했다. 그가 이 모임에 참여하는 3명의 기독교인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하자 그의 아내는 몹시 화를 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기독교와 이슬람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였고 그녀는 남편인 라마단에게 신앙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라마단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겠지만, 내 신앙만큼은 버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아내는 “집에서 기독교 신앙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며 경고했다.

사건이 발생한 1월 20일, 그녀가 부모님의 집에 방문하던 시간에 라마단은 한 기독교인 친구와 함께 집에서 기도하며 성경 공부를 했다. 후에 친구가 떠나고 돌아온 아내는 자녀를 통해 성경 공부에 대해 듣게 되었고 남편을 추궁하던 끝에 그녀는 무거운 쇠 몽둥이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를 목격한 자녀는 “쓰러진 아버지는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의식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라마단을 병원에 갈 수 있게 도움을 준 목사는 “라마단의 처가 식구들이 이혼을 요구하며 그녀와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했다. 그러는 동안 무슬림 이웃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해 위협을 느껴 급히 라마단을 차에 태워 달아났다”고 말했다.

라마단은 이마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옷은 피로 흠뻑 젖었으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의사는 쇠 물체의 충격으로 인해 그가 말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목사는 그가 말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며 “이 비밀 기독 공동체 역시 추가 공격의 위협에 처해 있으며, 라마단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소말리아 헌법은 이슬람을 국교로 규정하며, 다른 종교의 전파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모든 법이 샤리아(이슬람 율법)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비무슬림을 위한 예외 조항이 없다. 이슬람 법학의 주요 학파에 따르면, 배교에 대한 처벌은 사형이다. 소말리아는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기독교 박해국 순위(World Watch List)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기 가장 어려운 50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정의를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이사야 59:14,20)**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떠나 마땅히 행할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이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신 가정에서 머리인 남편에게 폭력을 행한 아내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개종을 금지하며 샤리아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소말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위기를 맞은 교회공동체와 라마단 형제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신 것처럼 이 땅에 대적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악에서 떠나 주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아이티, '갱단 폭력' 일상화로 케냐 경찰관 144명 증파

아이티에서 갱단 폭력으로 살인·약탈·성폭행·납치·방화 등이 일상화된 가운데 치안 유지 임무를 수행할 케냐 경찰관 144명이 추가로 현지에 도착했다고 연합뉴스가 AP통신 등을 인용해 7일 전했다. 유엔의 승인을 받은 다국적 치안 지원(MSS) 임무 수행을 위해 아프리카 케냐 경찰들이 아이티 수도 포트프랭스에 증파됐으며, 이미 현장에서 활동 중인 케냐 경찰들과 함께 수도 도심 거리 80% 안팎을 장악한 갱단원 소탕과 주민 안전 보장을 위한 작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이티에는 케냐 출신 외에도 자메이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에서 900여 명의 군·경이 들어와 있으며, 케냐 주도 다국적 경찰력은 아이티 군·경과 함께 치안 유지 임무를 수행 중이지만, 인력·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인도주의적 위기 심화로 아이티 국내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실형민은 104만 명으로 집계됐다.

야곱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꾸짖으시매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 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셀라)(시편 76:6,8-9)

하나님, 갱단 폭력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중범죄가 일상화가 되어버린 아이티를 긍휼히 여기사 국제사회가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갱단이 장악하고 있는 수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죄에 대하여 판결하시는 심판 주를 계시하사 이 땅의 악한 자가 두려워 잠잠케 하소서. 더욱 이때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 복음으로 아이티를 깨워주십시오. 그래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신 주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소서.

▲ 인도네시아 무슬림 수백 명, 복음 행사 참석 전도자들에 항의 시위

인도네시아 중부 술라웨시주에서 이슬람 공동체 연합(AUI)과 이슬람 공동체 포럼(FUI) 소속 수백 명의 무슬림들이 주요 복음 행사에 참석한 두 명의 전도자에 대해 항의 시위를 벌였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지난 7일 전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 단체들은 지난 1월 17일, 24일, 29일에 주도 팔루 거리에서 캐나다 월드 임팩트 미니스트리 설립자인 피터 영그렌과 스위스 전도자 제이콥 벤데스텐의 '우정 축제(Friendship Festival)' 참석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행사는 원래 종교 간 화합을 위한 행사로 복음 전도의 기회로 계획되었으나, 무슬림 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당국은 이를 기독교 활동으로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 반대 시위를 주도한 주최측은 피터 영그렌이 '영적 전쟁' 개념을 언급한 것이 이슬람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무슬림들은 단순한 종교 행사처럼 보이지만, 결국 기독교 전도 활동의 일환이며 이슬람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로 보고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시편 75:9-10)

하나님, 인도네시아에 복음 전도와 주의 이름이 전파되는 일을 방해하는 사탄을 대적하며 기도하오니 그 땅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순종하는 두 전도자를 축복하여 주사, 수많은 반대입장과 압박에도 복음 전함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도네시아의 교회가 영광의 주를 찬양하기를 쉬지 않고 주께 기도하여 그 땅의 악인들의 뿔이 낮아지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높임 받는 나라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태국 여성들, 조지아로 유인돼 ‘난자 적출’...“100명 감금 추정”**



중국계로 추정되는 인신매매 조직이 대리모 등 일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태국 여성들을 조지아로 데려간 뒤 가두고 난자를 채취한 것으로 나타나 태국 조지아 치안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태국 경찰청은 이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지아 내무부도 최근 자국에서 인신매매 조직에 감금돼 있던 태국 여성 3명을 태국으로 송환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국인 4명을 상대로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3명은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리모로 일하면 월급으로 2만5천 바트(약 107만원)을 주겠다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보고 두바이, 아르메니아를 거쳐 조지아로 갔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지아에서 중국인 두 명이 자신들을 “태국 여성 60-70명이 있는 집으로 데려갔다”면서 “그곳의 여성들은 (대리모) 계약이나 (대리모를 의뢰한) 부모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성들이 (난자 채취를 돕는) 주사를 맞고 마취를 한 후 기계로 난자 채취를 당했다”면서 “이런 정보를 받고 광고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자 무서워져서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난자 채취를 당하지 않기 위해 피병을 부렸지만, 조직에 여권을 뺏기고 태국으로 귀국하면 체포될 것이라는 위협을 당했다. 또 한 피해자는 인신매매 조직을 중국 폭력조직이 운영했으며, 난자를 채취당한 일부 여성들은 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귀국을 도운 태국 비정부기구(NGO) ‘아동·여성을 위한 빠베나 흥사꾼 재단’은 조지아에 약 100명의 피해 여성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 재단의 빠베나 창립자는 지난해 9월 몸값으로 7만 바트(약 300만 원)를 인신매매 조직에 주고 풀려난 다른 태국 여성에게서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채취된 난자가 다른 나라에서 체외인공 수정(IVF·시험관)에 사용하기 위해 밀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녀들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 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요한1서 3:4,7-8)

하나님, 경악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을 통해 결국 각자의 이익을 좇아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는 죄인의 실상을 보며 탄식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먼저 관련된 여러 국가가 이 사건에 협력하여 수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로 마귀의 일을 모두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들에게 계시해 주소서. 더 이상 원수의 미혹과 죄의 덫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주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를 행하는 주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열방에 주의 공의를 나타내 주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필리핀 도피’ 외국인 수배자 한국인이 최다

지난해 필리핀으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힌 외국인 수배자 중 한국인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국은 성명을 내고 지난해 해외에서 필리핀으로 도피해온 외국인 도망자 180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128명)보다 41% 늘어난 것이다. 이 중 한국인이 74명으로 41%를 차지, 중국인(62명)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이어 대만인 12명, 일본인 11명, 미국인 7명, 이탈리아인 2명, 호주인 2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경제 범죄, 투자 사기, 불법 도박, 자금 세탁, 피싱 사기, 강도, 마약 거래 등 다양한 범죄로 수배된 끝에 검거됐다. 이민국 관계자는 검거된 외국인 수배자의 거의 모두가 이미 출신 국가로 추방돼 현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 이민국에 따르면 체포된 외국인 도망자의 수는 2023년 180명, 2022년 128명, 2021년 83명, 2020년 55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조엘 비아도 이민국장은 성명에서 “이 나라는 외국인 범죄자의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잠언 21:3-4)

하나님, 도피가 쉬운 환경으로 알려진 필리핀에 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는 각국의 범죄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을 돌아 보옵소서. 이 나라가 범죄자들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악을 행하면서도 스스로 형통함을 바라며 정의를 지키는 것을 싫어하는 죄인들의 교만한 심령에 은혜의 빛을 비취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구부러진 마음을 곧게 하시고 필리핀 교회를 통해 진리의 생명과 주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사 이 땅이 여호와를 따르며 주님의 인자를 사모하게 하소서.

▲ 리비아, 수 십구의 이주민 시신 매장지 발견

리비아 동남부 사막 지역에서 이주민 시신 수 십구가 묻힌 집단 매장지 두 곳이 발견됐다고 11일 연합뉴스가 AP통신 등을 인용해 전했다. 리비아 보안 당국과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지난 7일 동남부 쿠프라시의 한 농장에서 19구의 시신이 묻힌 매장지가 발견됐다. 또한 8일 쿠프라시의 한 이주민 시설에 감금된 이주민 76명을 구출하고 시신 30구를 수습했다. IOM은 일부 시신에는 총상 흔적도 발견됐으며 더 많은 시신이 매장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비아 보안 당국은 고의로 불법 이민자의 자유를 박탈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를 한 리비아인 1명과 외국인 2명 등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리비아는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중동 이주민들이 유럽으로 가기 위해 거치는 주요 경유지다. 10년 넘게 이어진 리비아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인신매매 조직이 이주민을 착취하고 밀입국시켜 학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주민을 감금하여 몸값을 요구하거나, 강제노동, 성 착취, 장기밀매 등에 이용하고 있다. IOM에 따르면, 리비아에서 발생한 이주민 사망·실종 사건 965건 중 22% 이상이 육로에서 발생했으며, 지난해 3월에도 서남부 슈아이리프 지역에서 최소 65구의 이주민 시신이 발견된 바 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시편 120:1-2)

하나님, 가난과 폭력 등의 이유로 더 나은 곳을 찾기 위해 본국을 떠난 이주민들을 께어 범죄를 일삼는 리비아의 인신매매 조직을 꾸짖어 주십시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유혹하고 생명을 빼앗는 저들의 악행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희망을 찾아 나아왔지만, 범죄조직들에 의해 소망을 잃어버리고 불법 착취에 이용당할 위기에 있던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육체의 생명을 건짐 받은 것을 넘어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까지 일하여 주옵소서.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트럼프 대통령 “정부 내 반기독교적 차별 즉각 중단시킬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원회와 반(反)기독교 편견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백악관 내 신앙실(faith office)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의회 등에서 열린 국가기도회에 잇따라 참석해 “안타깝게도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이 신성한 (종교의) 자유가 미국 역사상 전례 없이 위협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참석자가 낙태 시술을 실시하는 클리닉 앞에서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수년간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모호한 법을 무기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뒤 낙태 반대 시위로 인해 처벌받은 인사에 대해 최근 자신이 사면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반기독교 편견 대응 TF는 팜 본디 법무부 장관이 이끌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TF의 임무는 연방 정부 내에서 모든 형태의 반기독교적인 (공격) 표적화 및 차별을 즉각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TF는 또 우리 사회에서 반기독교적 폭력과 폭력행위를 철저히 기소하고 전국의 기독교 및 종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대선 때 암살 시도에서 살아난 것을 언급하면서 “나를 살린 것은 하나님이었다”면서 “그 일로 무엇인가 바뀌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것에 대해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경에서 말하기를 평화를 만드는 사람(피스메이커·peacemaker)은 복을 받는다고 했다”라면서 “나는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내 업적이 피스메이커와 (국민) 통합을 이룬 사람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있었던 여객기와 군 헬기의 충돌·추락 참사와 관련, “일부 국가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항공관제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면서 “우리 장비는 노후화(obsolete)됐다. 우리가 적합한 장비가 있었다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내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비행기가 착륙할 때 나는 다른 나라의 (관제) 시스템을 사용한다”라면서 “어느 나라의 것을 사용하는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모두 함께 모여 우리가 최고의 항공관제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는 단일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역대하 31:21)

하나님, 반기독교적인 공격과 차별이 난무했던 미국 땅에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책과 여러 행정 명령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겸손히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들도 주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며 한마음으로 진리를 따르는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영광에 사로잡혀 주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증인들로 인도하십시오.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방글라데시, 지난해 시위 진압으로 1,400명 사망

지난해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으로 약 1,400명이 숨졌다는 유엔의 보고서가 발표됐다고 연합뉴스가 AFP통신 등을 인용해 전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12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 정권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살인, 고문, 감금 등 비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당시 시위대에 대한 정부의 무력 진압으로 약 1,400명이 사망하고, 그중 약 12-13%인 최대 180명이 아동으로 추정되며, 수천 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11,700명 이상이 구금되었으며, 많은 경우 보안군이 비무장 시위대를 근접 거리에서 의도적으로 사살하는 등 초법적 처형을 자행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지난 유혈 진압은 지난해 6월 법원이 ‘독립유공자 후손 공직할당제’ 부활을 결정한 것에 반발해 일어난 대학생들의 시위로 인한 것이다. 정부는 무력을 동원해 진압에 나섰고, 이후 일반 시민들과 군경 일부까지 시위에 가담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결국 하시나 총리는 같은 해 8월 인도로 도피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의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잠언 28:5,13)

하나님, 이전 정권이 저지른 시위대에 대한 유혈 진압으로 수많은 사람이 숨지고 부상과 구금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방글라데시의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십시오. 이런 심각한 참상을 뒤로하고 도피한 하시나 전 총리를 꾸짖으사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주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하소서. 진리에 무지하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방글라데시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 의에 주리고 가난한 심령을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로 계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뿐 아니라 죄를 자복하고 버려 영혼의 구원과 주와 동행하는 형통함을 누리게 하소서.

▲ 튀르키예, 지진 이재민 아동 4명 중 1명 임시대피소 거주

튀르키예에서 2023년 2월 강진으로 집을 잃은 아동 4명 중 1명이 여전히 임시대피소에 거주하며 교육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2일, 지진 발생 2년째를 맞아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2023년 2월 6일 새벽,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5만 6,000명 이상이 사망,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현재까지도 아동 약 15만 명을 포함해 53만 8,000여 명이 집을 잃은 채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진으로 68만 채 이상의 주택이 파괴됐으나, 지난해 12월 기준 필요한 주거 공간의 25%조차 재건되지 않았다. 또 지진 피해 지역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27%가 경제·사회적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부 학생들은 무너진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전학 온 학생 증가로 인해 과밀 학급 문제까지 겪고 있다. 특히 시리아의 지진 피해 지역에서는 아동 3명 중 1명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이사야 61:4)

하나님, 튀르키예를 뒤흔든 강진이 2년이 지났지만 피해 복구가 여전히 더딘 가운데 임시대피소에서 기본적인 지원을 보장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을 돌아보옵소서. 국제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황폐해진 그 땅이 속히 재건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의 다음세대가 비참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꿈꿀 수 있도록 튀르키예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튀르키예의 무너진 것을 복음으로 다시 일으켜 중수하는 세대로 일어나 그 땅에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